

# 만호해역 분쟁 각하... 갈등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현재, 권한쟁의 심판서 각하 결정 본안판단 해야한다는 반대의견 제시 향후 침해시 재차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기

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 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해왔고 육지로부터 거리가 해남군은 약 3.2km, 진도군은 약 8km 떨어져 있으나 진도군에서 관할구역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

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2020년 진도군 면허처분 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며, 장래에 예정된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예외적인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2030년에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상정하여 사

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정 의견을 설명하였다.

이에 헌법재판관 3인은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장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해상경계 관할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결국 분쟁 지역 해상경계는 획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향후 침해 시 재차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정확한 것이 아쉬우나, 양군 분쟁지역에 대한 해상경계 획정 결정이 아닌만큼 앞으로 어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창녕군 달창저수지 수변관광 자원화 추진

창녕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계 지역인 달창저수지에 창녕 북부권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수변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시공자가 선정됨에 따라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한다. 군에서는 50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2024년 말까지 진입도로, 주차장, 수변 둘레길, 등산로, 전망대 및 쉼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문화휴식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 새울원자력본부

#### '새울·2·3·4호기'로 명칭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향후 60년 이상 운영할 새울원자력본부 발전소 호기 명칭을 분부 명칭과 통일해 변경했다. 신고리 3·4·5·6호기가 새울 1·2·3·4호기로 변경되는 것이다.

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일 호기 명칭 변경 기념식을 가졌다. 또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새울 3·4호기(舊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 광양시 '차단숲'

####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상

광양시는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차단숲'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차단숲은 경전선 폐철도 4.0km 구간 중 천연기념물 제235호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가 있는 유당공원 주변은 2016년 7월 폐선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곳이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 하회별신굿탈놀이

####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유력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지난 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외 17개 종목이 속한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밀양시, 산내·삼거지구 상수도 설치

각 지구당 사업비 30억

밀양시는 경남도의 2023년 지방전환(균특전환)사업으로 '산내 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삼거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 선정은 시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는 농촌의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주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산내면 산내지구(원서, 남

명, 삼양리)와 단장면 삼거지구(범도, 구천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지구당 30억원씩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총 10km의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가압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주 배수관로가 매설될 산내·삼거지구 일원의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산내 마전 마을 외 11개 마을에는 별도 시비를 투입해 마을단위 지방상수도 매설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상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공공기관 통폐합 효율적"

### 울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행정낭비·비효율성 제거

울산시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이뤄졌다.

연구대상은 2022년 경영평가 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점 검토했다.

연구결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가칭)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3억 1,000만 원, 운영비 5억 9,000만 원 등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가칭)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은 '기업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하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7억 9,000만 원, 운영비 5억 2,000만 원 등 연간 1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4%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과 시민대상 교육 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2억 5,000만 원, 운영비 6억 3,000만 원 등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 및 총 자산액은 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 시,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은 물론 유사·중복적인 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국비

노인복지시설 등 77곳 선정

전남도가 공공시설을 위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국비를 전국 최다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3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서 22개 사업 77곳이 선정돼 국비 9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경로당,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을 주요 사업 대상으로 발굴했다.

다 지역과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에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차세대 지역뉴딜·바이오 투자조합 결성

### 양산시 성립일부터 8년간 존속 '제약·의료' 분야, 특화분야 설정

양산시는 1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역뉴딜&바이오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차세대 지역뉴딜&바이오 투자조합'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2021년 출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결성이 준비되었으며 140억 원을 출자하는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가 특별조합원으로,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민간기업과 양산시 등 지자체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경남벤처투자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합은 성립일로부터 8년간 존속하며 투자기간은 4년으로 수자원,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관련 및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에 출자약정액의 60%인 12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출자자로 참여한 지자체 소재 중소·벤처기업에도 출자약정액 중 일정금액을 투자할 예정으로, 양산시의 경우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세포·유전자치료제, 첨단의료기기 등 항노화분야 중소·벤처기업에 15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의생명 특성화 캠퍼스로 조성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어린이·치과·한방병원 등 대학·병원·연구소가 집적된 강점을 살려 '제약·의료' 분야를 특화분야로 설정하고 동남권 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첨단 의료분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 부문 성장으로 의료클러스터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경남)=정병호 기자 metrobusan1@